

학습 자료

— 대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노트 —



10차시. 인터넷과 저작권

1. 인터넷의 특징

1)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도 모두 복제, 전송 등을 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도 오프라인에서의 책이나 음반 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① 공개된 저작물의 이용

인터넷상에 공개된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면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범위나 조건을 정해 이용을 허락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내가 쓴 글을 그대로 퍼가면서 자신이 쓴 것으로 사칭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했다면 저작권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내가 작성한 것을 허락을 받지 않고 이름까지 바꿔서 카페나 블로그에 올렸다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네이버 등 OSP에게 해당 글의 복제전송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호기간의 동일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해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 것도, 저작권 보호가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작권 보호기간도 사후 70년으로 동일합니다.

③ 저작권 제한 사유도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저작권법에는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사유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에서의 이용 역시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비평, 감상문을 쓰면서 영상의 한 장면 정도 캡처해서 함께 올리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과 다른 인터넷의 특성

인터넷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이 저작권 ‘침해’에 이용된다면 그만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음악시장의 붕괴를 경험한 바 있지요.

사적인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은 사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지만,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발송하는 경우라면 공중송신권 침해가 됩니다. 이것이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인터넷은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며, 동시에 공중과 소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불법 음반 테이프는 있었지만 냅스터와 소리바다와 같은 공유프로그램은 순식간에 음악시장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저작권자들도 자신의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저작권법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전달에 대해서는 원활한 이용보다는 권리자 보호에 보다 신경을 써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전달에 대해서는 원활한 이용보다는 **권리자 보호**에 보다 신경을 써 온 측면

권리의 부여	권리의 제한
복제권	사적 복제 (8차시)
공연권	비영리공연 (9차시)
공중송신권 - 인터넷을 통한 전달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많은 고민

2. 웹하드, P2P

인터넷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웹하드와 P2P를 통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웹하드나 P2P에 영화나 음악을 올렸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1) 업로드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1기가가 넘는 영상저작물도 P2P나 웹하드를 통해

쉽게 공유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Mp3 음악시장의 문제가 이제는 영화와 방송프로그램 등의 동영상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웹하드나 P2P를 통해서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적으로 유통시켰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최근에는 업로드 한 사람에게 실형까지 선고하고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지요.

2) 다운로드

아직까지 웹하드나 P2P에서 영화, 음악 등을 다운로드 해서 봤다고 교도소에 간 친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임을 알면서 다운 받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단도 있으니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토렌트

우리나라는 2011년 소위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하여 웹하드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을 막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2P나 웹하드가 줄어들더라도 새로운 공유방법이 나올 뿐, 불법 공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토렌트입니다.

토렌트(torrent)는 P2P 파일 전송 프로토콜(Protocol)인 비트토렌트(BitTorrent)가 사용하는 파일의 이름입니다.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분산되어 있는 파일들을 찾아 이에 접속하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받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소위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렌트 파일의 정보를 구하는 것만으로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P2P, 토렌트를 이용하여 개봉중인 영화와 같이 불법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과거 소리바다를 통해 불법적으로 mp3를 공유했던 것과 동일하게 위법이 됩니다. 파일을 쪼개서 공유하기 때문에 업로더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수백 명 심지어는 수천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4) 웹하드, 공유형 P2P 서비스 운영자

웹하드는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 한 사람은 당연히 저작권 침해자가 되겠지만,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는 책임이 없을까요? 일부 웹하드를 보면, 카테고리를 만들어주고 배너까지 띄워주는 등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독려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웹하드, P2P서비스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바다 운영자가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인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은 불안하겠죠.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올릴지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깐요. 게시판 운영자가 이용자를 모니터링하거나 불법 저작물 유통을 걱정하여 아예 게시판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저작권법이 의도한 바와 배치됩니다.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다음의 사항만 지킨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약

- 저작물의 송신을 개시하지 않을 것, 저작물과 수신자를 지정하지 않을 것
- 반복적인 침해자 계정해지 정책 실시, 표준적인 기술조치 수용
- **침해행위 통제 권한 있는 경우, 직접적 금전적 이익 없을 것**
- **침해행위 인지시 해당 저작물 복제·전송 중단**
- 복제·전송 중단 요구 대상자 지정 및 공지

참고로 미국에서는 1993년 게시판 운영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5) 클라우드 저장서비스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장서비스는 이미 일상화되고 있는데 유클라우드나 구글클라우드, 네이버의 N드라이브 등이 그 예입니다.

클라우드 저장서비스에 영화를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는 내 컴퓨터 HDD에 영화를 복제한 것과 같으며 이는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에서 미공개 포스팅에 올린 저작물, 즉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만이 회원인 카페를 만들고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디지털 시대에는 8차시에서 봤듯이 사적 복제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하급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한 바 있으므로 개인적인 저장 공간이라 하더라도 불법 파일은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인터넷,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위한 노력

인터넷 게시판의 글들, SNS에 올린 사진도 모두 저작물입니다. 일일이
 작성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면 소위 리트윗이나 펴글은
 어려워집니다. 인터넷은 개방과 공유, 지식과 정보의 전파에 적합한 매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저작권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SNS에 올린 글과 사진도 저작권이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콘텐츠라고 해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물(글, 사진 등)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해서 복제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에 쓴 글과 직접 찍어 올린 사진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면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과
 어린이가 그린 그림 모두 마찬가지이지요. SNS로 표현된 글이나 사진들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저작권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사람들의 저작권 인식은 온라인에서
 매우 낮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개방과 공유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렇게 저작권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계약, 약관

트위터나 네이버, 다음 같은 곳에서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위해 OSP가 대신 저작권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리트윗 하는 것은 왜 저작권 논란이 없을까요? 글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트위터에 가입하면서 약관에서 리트윗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투도우는 음악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사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3) CCL

CCL은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쓰도록 허락해주는 라이선스입니다.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기증하지 않고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공개적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CCL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여 이를 준수한다면 원칙적으로 자유 이용을 허용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들었지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
	저작자표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CC BY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C BY-NC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D

라이선스	이용조건	문자표기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CC BY-NC-ND